

체육공원조성 80억 투자 논란

영광군, 도동리 구도심 활성화 차원 필요 주민들 “관광객 유치·주민소득사업에 써라”

영광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에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 공원에 60억원을 들여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또 이곳에서 1km 이내인 삼지 공원에도 20억원을 들여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선 인접 지역에 주민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복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주민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회 일각에서도 “현재도 불갑사 수변공원 및 백제불교도래지 등 관광지와 종합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후관리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특히 “총사업비 80억원 중 약 20억원으로 도동리 일대에 축구장 등 기초적인 생활체육시설만을 설치하고 남은 사업비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레저공원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도동리 일대 주민휴식공간 조성은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전남경찰 태풍 피해지역 복구 '구슬땀'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보성군 벌교읍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716 전경대원들이 도로를 덮친 토사 제거에 여념이 없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고흥과 보성 등지에 전·의경 9개 중대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펴고 있다. /보성=안규일기자 giahn@



전국 뽀빠 할머니들의 춤솜씨

보성 실버댄스팀, 강진·남해대회 입상

보성 실버댄스팀(사진)이 전국 댄스대회에서 각종 상을 휩쓸고 있다. 70·80대 할머니들로 구성된 보성 실버댄스팀은 지난 14일 강진 청자문화축제장에서 열린 제 3회 전국 실버댄스 체조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 전남도지사 상장과 시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경남 남해군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실버체조 경연대회에 참가해 인기상을 수상한바 있다. /보성=안규일기자 giahn@

광산구 추석 21개 성수품 중점관리

3개 점검반 과다인상 방지

광산구가 추석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대추·밤 등 21개 성수 품목에 대해 중점관리에 나선다. 구는 지난 17일 물가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대비 광산구 물가안정대책위원회(위원장 윤재철 부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3개 점검반(총괄반장 최환연 지역경제팀장)을 편성하고 품목별로 과다한 인상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운동'과 '검소한 명절 보내기 운동'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직원 부패예방 교육 농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는 지난 17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식기강 확립과 부패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농촌공사는 '부패-ZERO' 실현과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는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장봉조 본부장은 “청렴-HACCP 제도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지리산 관통도로 폐쇄 안된다”

국립공원공단측 교통사고 등 우려 서둘러 대체 검토... 주민들 반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리산 관통도로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원마을 등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난 4월 지리산 관통도로에 대한 전문 용역을 의뢰한 결과 도로 폐쇄가 불가피한 것으로 중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역 결과 도로를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생태계 파괴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으며 일반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고 대신 셔틀버스를 도

입하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원마을 등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급감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심원마을 20여 가구를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로가 폐쇄되면 도로 인근에서 민박과 요식업을 하는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도로를 폐쇄하려면 먼저 이주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도로 폐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지자체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단계”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8년 개통된 지리산 관통도로는 뱀사골 계곡~성삼재~구례 천은사 구간 등 2개 코스 43km로 연간 4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농어촌 보안등 절전형 교체 고흥군 연간 3억 예산 절감

고흥군이 보안등 교체를 통해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고흥군은 최근 농어촌 마을 보안등을 절전형 고효율이 높은 삼파장 램프로 교체하는 절전형(ESCO) 에너지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기존 나트륨 전등을 삼파장 램프로 바꾸는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추진, 16개 읍·면 510여 개 마을 7천900여 개의 보안등이 교체됐다. 이 보안등의 특징은 전기가 기본 등(燈)의 40%에 불과한데 조도가 높고 내구연한도 긴 편이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이에 따라 연간 1억 5천여만원의 전기료 절감분과 15년의 시설물 내구연한, 유지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시설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3억 원 안팎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보안등 시설과 보수·유지 관리(5년)는 모두 민간업체가 맡는 대신 군은 시설비 37억여 원을 5년간 나눠 갖게 된다. 한편 군은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린신고 접수와 처리결과 등을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고장의 명예를 빛내주세요”

송정농협, 정광고역도팀 등 체전 출전팀 후원

송정농협이 지난 17일 송정농협 조합장실에서 제 88회 전국체전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출전하는 관내 출전팀을 격려하기 위한 지역사랑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송정농협은 이날 호남대 축구와 양궁팀에 각 100만원, 광산구 청태권도팀과 정광고역도·인라인롤러팀, 광주송무정 궁도팀에 각 100만원, 체전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벌이는 송정중 관현악 밴드부에 1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송정농협은 그동안 지역발전예금 판매로 조성한 기금을 지역



사회에 지원해 왔다. 나 훈 조합장은 “지역을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송정농협이 지역과 함께하는 꼭 필요한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Advertisement for 'RODEM' (로템) featuring a '신제품출시' (New Product Launch) for '로템갤러리' (RODEM Gallery). It includes images of various furniture items like beds, sofas, and tables, along with promotional text and a phone number.

Advertisement for '루스터펜츠' (Luster Paints) featuring a '바지속의 마법' (Magic in the Trousers) theme. It includes images of paint cans and promotional text, along with a phone number 1577-2787.